

# 부부간의 상호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산후우울증 환자의 치료사례

김 종 만

부산교육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정신병원에 3번이나 입원하였으며 “산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37세의 이혼직전에 있는 한 부인의 문제를 전통적인 치료법인 부인 개인의 심리치료에서 벗어나 부인과 남편의 상호 문제로 인식시켜 상호협력력을 통한 문제해결 치료방법을 매주마다 남편과 부인이 교대로 평균 3시간씩 6개월동안 받은 결과 청상적인 가정생활로 회복할 수 있었다. 회복상태는 일년동안 관심있게 지켜보기로 했다.

첨단과학의 발달은 사회과학의 급속한 발달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정신과학 분야에도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생물학, 정보과학 등의 관련분야들이 각종 심리치료, 실험 및 임상과정에 적용되어져, 이후 통합된 이론으로 발전된 치료법이 가족치료요법이다. (Family System Therapy) (김종만, 1988).

이 치료요법은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실험실에 감금된 동물들의 행동과 자연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동물들의 행동에 의미깊은 차이점을 발견한데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행동도 그와 의미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과 분리시켜 개인 한 사람의 문제행동이나 마음을 분석 치료하는 정신분석요법이나 행동분석요법에 반대하고 (Hoffman, 1981) 바로 그 사회집단의 구성원속에서 현재의 서로 주고 받는 상호 행동 그대로를 일면경(one-way mirror)을 통해서 관찰 분석함을 강조한다.

또한 가정은 출생때부터 시작해서 부모관계, 형제관계, 친척관계가 24시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회화 과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사회집단활동의 기본으로 보고(Hoffman, 1981) 개인의 행동은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떠나서 생각되어질 수 없으며 한 사람의 행동이나 결정은 전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의미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문제행동이나 증세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상호 영향력의 잘못으로 가정의 구조, 기능, 발달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병들어 있다는 은유적 의미로 받아들인다(Satir, 1967).

부부간의 문제도 문제행동을 하는 남편 한 사람이나, 증세를 가진 부인 한사람의 문제만으로 보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분리해서 치료하기보다는, 한 개인의 문제는 부부간의 상호 문제로 보고 부부간의 상호기능이나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부부간의 문제나 가정의 갈등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표되었다(Kniskern & Gurman, 1979; Pinsof, 1981; Wells, Dilkes & Trivelli, 1972).

본 연구는 여러번 정신병원의 입원경력을 가진 이혼직전에 있는 S부인의 문제를 S부인

개인 심리치료에서 벗어나 남편 H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호 인식시켜, 남편과 부인 상호 관계의 치료 및 개선, 친구, 친척 등의 주위 환경의 변화, 부인의 내면의 지각상태 및 심리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부인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다.

## 사 례 사

현재의 문제점 : 남편 H(38)와 부인 S(37)는 결혼생활 10년, 딸 Y(6)가 있음. 남편 H가 부인의 치료를 요청했음. 부인 S는 여고 재학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었음. 졸업 후 같은 직장에 근무중이던 현재의 H와 연애 결혼했음. 임신 8개월 때에 직장에서 사직. 딸의 출산 직후 산후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받았음. 남편 H에 의하면 부인 S는 딸의 양육에 무관심했고, 우울증으로 87년도에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음.

한밤중에 자주 남편을 깨워서 대화하자고 우기며 대화의 내용은 언제나 과거의 남편의 잘못에 대한 공격 비슷한 내용으로 남편은 지쳐 있었다. 부인의 무관심으로 남편은 거의 매일 아침식사를 거르고 다녔으며, 남편은 딸을 데리고 혼자 살겠다며 이혼을 여러번 요청했으나 부인은 거절했음. 요즘은 서로의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함.

가족치료요법의 관점에서 본 문제의 진단 : 남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남편은 문제가 없으며 문제의 요인은 부인의 성격결함에 있었다. 공격적 성격, 친구가 없음, 이웃과 잘 사귀지 않음 등. 남편의 요청대로 부인을 치료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치료방법과는 달리 부인의 현재의 문제점은 가정이 병들어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초기 인터뷰 결과 분석으로 작성된 Genogram(그림 1)을 통해서 (Pendagast & Sherman,

1978) 가정의 여러가지 기능에 문제점들이 분석되었다.

가족행동의 전후관계(Family Context) : 남편 H와 부인의 주고받는 기능 그 자체에(Couple interactional relationship) 문제점이 있었다. 부인 S의 성격결함이 남편 H로 하여금 늦게 귀가하는 행동이나, 부인에 대한 애정결핍적인 행동의 원인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늦은 귀가, 무관심적인 행동이 부인의 성격결함 요소를 자극해서 부인의 결함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다(Haley, 1985). 따라서 어느쪽이 어느쪽의 원인이 됐느냐는 의미가 없다(김종만, 1988). 부인 S와 남편 H와의 상호관계 그 자체가(Interactional relationship) 문제였다.

남편 H와 딸 Y의 관계가 남편 H와 부인 S와의 관계보다 더 밀착되어 가까웠다. 기능적인 가정에서는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가 자녀들과의 관계보다 더욱 친밀하고 가깝다(Minuchin, 1985). 그러나 남편 H는 부인이 정신병원에 드나든다는 것으로 딸 Y로 하여금 부인 S를 멀리하게 하였고 딸 Y의 양육을 내세워 딸과 더욱 친밀하였다. 그림 1에서 남편-딸과의 관계가 남편-부인과의 관계보다 더욱 친밀하게 나타났다.

사회생활 전후관계(Social Context) : 부인 S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이웃관계와 주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친구들, 학교 친구들과 단절되어 있었다. 지금 유일하게 외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은 성당에 참석하는 교우들과의 관계였다(그림 1).

친족들과의 전후관계(Family of origin) : 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인은 친정 식구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장남의 역할을 자신이 맡아서 친정 식구들의 뒷바라지에 자신을 희생했다고 믿고 있어서 큰오빠의 무책임에 대한 미움, 갈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친정 식구들을



원망하였다. 시댁 식구들과의 큰 갈등은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87년도에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어머니가 딸 Y의 양육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 치 료

1주일에 1회씩 남편과 부인이 교대로 인터뷰를 받았음. 중반기 이후로는 2주일마다 1회씩, 후반기에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질 때 실시되었고 인터뷰시간은 평균 남편이 2시간 부인이 4시간 총기간은 약 6개월 전체 치료회기는 22회, 인터뷰 장소는 학생생활연구소 부설 심리상담실로 면담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시간에 다양하게 일어났었다.

초기인터뷰. 1회(남편), 2회(부인) : 문제의 파악, 남편과 부인의 상호문제임을 부각, 부인의 “산후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떼고(Label off) 새로운 인식 전환 유도.

1회(89. 3. 6. 오후 1시-3시) : 남편 H가 심리상담실을 방문 약 2시간에 걸쳐서 현재의 여러가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음. 부인 S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이 위기에 놓여 있으니 가정을 위해 도움을 요청함. 상담치료 방법이 전통적인 치료법과 다른 점을 대충 설명했으며, 치료자가 본인을 직접 만나고 싶으니 원한다면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음. 며칠후에 H가, 부인 S가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전달해 왔음. 날짜를 토요일 오후로 정했음.

2회(3. 18. 오후 2시-8시) : 남편 H의 안내로 부인 S와 딸 Y를 소개받았음. 기다리는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남편 H와 딸 Y를 먼저 귀가시켰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있는대로 노출토록 하여 6시간에 걸쳐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순서없이 쏟아

아져 나왔음. 나타난 문제점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89년 이후 한번도 새벽 1시 이전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친정아버지, 어머니의 병간호및 장례, 작은 오빠의 학비, 작은 동생의 학업 뒷바라지 등 자신이 장남의 역할을 대행하여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였으나 남은 것은 그들이 오히려 자신을 정신적 고통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남편 H와 깊이있는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으며 대화시간을 가진다해도 결론은 종종 싸움으로 끝났다. 부인 S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신의 잘못도 있겠지만 남편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 갈등에서 오는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치료자가 부인 S의 생각을 받아들여 “산후 우울증”이라는 부정적인 병명대신에 남편과의 상호갈등에서 오는 신경과민적인 Stress 증세로 보게되자, 부인 S는 남편도 문제가 있다는 치료자의 인정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됨을 알고 기뻐하며 자신의 문제를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성격결함이 수정되어야 현재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시각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뀌었다.

인터뷰 마지막에 남편 H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T(상담치료자: Therapist) : 남편 H에게 전하십시오.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부인 S보다 남편 H가 시급하다고 말입니다.

남편 H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남편과 부인은 두 사람이 모두 변해야 된다는 것을 부인 S를 통해서 남편 H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2차 인터뷰. 3회(남편), 4회(부인) : 남편의 문제점 부각, 남편과 부인 상호관계 문제인식, 부인의 마음속에 누적된 감정의 표출 3회(3.

20. 12시30분-오후 3시) : T : 부인이 지난주에 다녀간 뒤에 서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H(남편 H) : 그 사람이(부인 S) 집에 와서 선생님께서 제가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T : 부인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H가 89년도 이후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보통 새벽 1시라고 이야기 하던데요. H : (머뭇거리다가) 집에 들어갈 생각이 안생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T : 한달에 한두번 정도라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거의 매일같이 늦게 귀가한다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치료자는 행동의 쌍방원리(reciprocity)에 대하여(Stuart, 1980)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남편 H는 자신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 들였다. 우선 남편 H의 행동수정이 부인 S보다 쉬울 것이니 일찍 귀가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부인 S에게 행동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1달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최소한 8시 이전에 귀가할 것과 자신의 귀가시간을 매일마다 적어서 다음 인터뷰 때 시간 메모지를 가지고 오도록 과제가 물이 부과되었다.

4회(3. 25. 10시30분-오후3시) : T : 지난번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부인이 보는 남편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S :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일동안 하루만 제외하고 모두 일찍 들어왔습니다. T : 평균 몇시쯤 집에 귀가했습니까? S : 6시30분에서 7시 사이에 들어 왔었습니다. 늦게 귀가한 날도 사전에 집에 들어왔다가 허락을 받고 나갔으며 전화로 늦게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남편 H의 행동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부인이 느끼고 있으며 남편 H가 일찍 귀가하는 그 보답으로 부인의 행동도 최소한 한가지만이라도 변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T : 부인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가장 싫어

하는 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S : 별로 생각이 안납니다. T :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어떤 특정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화를 내거나 싫어하는 내용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S : (한참 생각후) 남편의 가족들, 시어머니의 흉을 본다든지, 남편 형제분들의 학력이야기, 공부이야기를 하면 늘 듣기 싫어했습니다. 한번은 큰아버지의 아들이 공부가 시원찮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벌칙 화를 내는데 이해할 수 없더군요. 특히 남편은 자신의 출신교, 성적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T : 남편이 싫어하는 이야기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니 되도록 그러한 내용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피하도록 하십시오. S : 남편은 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이 남편의 자존심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저에게 말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T : 미리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마다 자존심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 도중에 남편이 싫어하는 내용이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내용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부인 S는 남편 H가 일찍 들어 왔을 때 비위를 건드리는 말들을 하지말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맞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다음 방문 때까지 남편의 귀가시간을 적어 올 것과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던 날짜를 체크해 와야 한다는 과제를 물( homework assignment) 부과받았다.

3차 인터뷰. 5회(남편), 6회(부인) : 상대방을 존중,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 부인의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표출.

5회(3. 28. 10시-오후1시) : 남편 H는 요즘 일찍 귀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인 S가 자신에게 대하는 행동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기뻐했다. T : 일찍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부부

가 서로 시간을 보냅니다? H: 저는 건너방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고 부인은 안방에서 뜨게질을 하거나 TV를 봅니다. T: 같이 TV를 보거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지 않습니까? H: 그 사람(부인 S)은 TV를 아주 좋아하는데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남편 H와 부인 S가 서로 같이 있는 시간에도 주로 따로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서로 부부간의 대화가 별로 없었다. 신문, 책을 보는 시간은 따로 정해놓고 보도록 하고 재미있는 TV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선정해서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약속했음.

6회(4. 1. 10시30분-오후2시): 치료자는 부인 S의 매회 인터뷰 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즉, 친정부모, 시어머니, 형제들 및 자신에 관해서 순서없이 쏟아놓은 이야기들을 수용하면서 감정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부인 S의 쌓인 감정을 노출토록 하였으며 부인의 이야기가 거의 다 노출되어졌다고 치료자가 판단되었을 때 치료자가 의도하는 치료의 방법으로 유도하였다. T: 부인은 남편을 어느정도 존경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100%를 최고로, 50%를 중간, 0%를 최하로 한다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S: (한참 결연쩍게 생각하더니) 남편에 대한 존경심은 0%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 S의 이러한 마음가짐이 내면속에 잠재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얼굴표정이나 행동으로 나타남을 인지시키고 다음 인터뷰 때까지 남편 H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나 장점에 대한 내용을 100가지 적어서 그것을 가져 올 것을 과제물로 제시하였다.

4차 인터뷰. 7회(남편), 8회(부인): 상호 상대방의 존경, 부인의 인지양식 전환-과거집착에서 지금 현재의 문제로 인식 전환, 부인의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표출.

7회(4. 8. 10-12시): 남편 H는 부인 S의 변화

된 모습이 상당히 지속적임을 이야기했음. 과거에는 한번 부인 S가 토라지면 1주일 이상 또는 심한 경우에는 1달동안 서로 말을 안하고 지냈는데 요즘은 약간 서로 갈등이 생겨도 몇 시간 이내에 회복되어 대화가 잘 소통이 된다고 말했음. T: H는 부인의 어떤 점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까? H: 머리가 아주 명석합니다. 옛날 부산에서 명문여고인 X X 여고 출신입니다. T: 부인에게 어떻게 해주면 부인이 기분이 좋아지겠는지 한 몇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H: (한참 생각하더니) 가지고 싶은 가구들을 바꾸거나 옷을 사 주면 될 것 같습니다. T: 너무 큰 것에서 찾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 찾아 보세요. 예를 들어 부인의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든지 저녁식기를 씻어 준다든지, 시장에 같이 간다든지 등.

남편 H에게 다음주 인터뷰 때는 부인 S에게 어떻게 해 주면 부인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기쁘고 빨리 회복될 수 있겠는가 100가지를 노우트에 적어 오라는 과제를 주고 헤어졌음.

8회(4. 13. 오전10시30분-오후5시): 부인 S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음.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며 지내기 보다는 오늘도 내일에는 과거가 됨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에 충실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T: 부인은 집에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합니까? S: 늘 지나간 일들이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T: 구체적인 것을 예를 들어 보세요. S: 직장에서 내가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쯤 X X 자리에 있을텐데,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지금도 직장에 있으며 모두 X X에 승진해 있습니다. T: 사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낸 것 아닙니까? S: 남편과 싸운 후에 확김에 냈습니다. 그후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모두가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즐거웠는데 집에 있어보니 따분하고 이웃 아줌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

가 시시한 내용들이고…… 그러나 선생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저의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며 살아보아야 지금 현재의 갈등의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가정이 회복되면 직장 은 이후에 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은 희망적입니다.

5차 인터뷰. 9회(남편), 10(부인) : 부인의 증세 재발, 증세행동의 강화요인 해소, 부인의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표출.

9회(4. 18. 12시30분-오후2시) : 남편 H와의 인터뷰에서 며칠전 부인의 옛날의 증세 “부인 S는 새벽 1시-2시경에 잠자는 남편 H를 깨워서 대화하자며 남편 H를 밤새도록 괴롭힘”가 재발되었다고 함. T :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증세가 어느 이벤트 다음에(event) 일어나는가? 언제(시간) 주로 일어나는가요? H : 주로 친정 식구들이 왔다가오나면 꼭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밤 1시-2시에 일어납니다. 또 부부싸움으로 갈등이 생긴 후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T : 그 전날이나 며칠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H : 막내 처남이 직장에 사표를 내고 부인이 있는 서울로 가고자 집사람(부인 S)과 상의차 왔었습니다. T : 막내 처남과 부인 S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H :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시간후 막내 처남이 화를 내며 집으로 갔습니다. T : H가 늦게 귀가 했다던지 부부싸움을 한 일이 없는지? H : 요즈음 저는 일찍 들어가고 부부싸움을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방문 다음에 부인 S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친정 식구들의 방문이 부인 S의 증세에 자극요인으로 증세를 강화시키는 자극요인을 없애고자 친정 식구들과 부인 S와의 직접 대면을 피하고 필요하면 남편 H가 다방이나 집 이외의 장소에서 친정

식구들을 만나도록 했음.

10회(4. 22. 11시-오후2시) : T : 며칠전에 막내 동생이 방문했던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S : 동생의 처는 서울에서 직장에 나가고 있고 동생은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서로 직장이 떨어져 있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7년이 지나 이제 부인결혼으로 가기 위해서 저한테 상의했으면 하고 와서 이야기 도중에서 서로 다투게 되어 동생이 화를 내며 다시는 안 온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학교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괴롭힙니다. 좋은 일로는 안 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죽대만 있었다면 친정 식구들이 늘 우리집에 불비지 않았을텐데. 지금 생각하니 나의 사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서 나만 희생된 것 같습니다. T : 동생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S : 어제 사표를 내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한편은 시원하고 한편은 섭섭합니다. T : 이곳 부산이나 인근지역에 친정 식구들이 사는지? S : 큰 언니가 있지만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모두들 서울에 있습니다.

부인의 증세에 자극을 주던 요인들중의 한 가지가 저절로 제거된 셈이었다.

6차 인터뷰. 11회(남편), 12회(부인) : 기대감의 증진, 부인의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 표출.

11회(4. 25. 11시-오후1시) : T : 부인께서 직장에 사표를 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H : 늘 그러한 이야기로 공격을 합니다. T : 특별히 가정 밖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일은 없나요? H : 부인 자신은 무엇이든지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나이도 있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T : 돈벌이에 관계되는 것도 좋지만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등과 관계되는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도 높이고 외부와의 접촉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H: 서예에는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인 S와 반드시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함.

12회(5. 3. 10시-오후3시): T: 집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S: 그냥 빨래하고 식사준비등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지나가 안타깝습니다. 옛날 친구들은 승진해서 다 발전해 있는데...

T: 지금이라도 Y양이 유치원에 가고나면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S: 오전 10시에서 오후1시까지 딸이 유치원에 간 시간은 자유시간입니다. T: 특별히 활동하고 싶어지는 것? 예를 들면 돈벌이 같은 것보다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 같은 활동말입니다. S: 공부하고 싶지만 이제 늦은 것 같고 적당한 부업도 없고...

부인 S는 성당에서 비슷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유들을 도와주는 카운셀러 같은 일을 하고 싶는데 옛날부터 그 방면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을 개발할 방도를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 했음. T: 부산에 카운셀링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학원같은 곳이 있습니다. 6개월 코스를 마치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카운슬러 대학이라 상담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지요. S: 정말입니까? 제가 꼭 그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데 정신병원 갔다온 경력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T: 본인의 경험은 오히려 좋은 밑천이 됩니다. S: 남편과 상의해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S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남편과 의논해서 꼭 카운슬러대학에 가겠노라 장담하며 돌아갔음. 며칠후에 신문에 난 카운슬러대학 안내광고를 오려서 남편 H를 통해서 부인 S에게 보내 주었다.

7차 인터뷰. 13(남편), 14(부인): 모순 치료법의 적용, 부인의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표출.

13회(5. 8. 12시-오후2시): 남편 H는 부인 S가 요사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옛날의 공격적인 내용의 말투도 많이 줄어 들었고 내년에 Y양이 국민학교에 입학하면 카운슬러대학에 갈 것이라고 부부가 합의 결정하였으며 부인 S가 심리적으로 예민하고 분석력이 뛰어나 좋은 카운슬러가 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말했다.

T: 부인이 화가 났을 때 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H: 어머니(부인 S의 시어머니)가 너무 무식하다느니, 옛날 풍습을 강조하는 구식이라느니, 이해력의 부족등을 내세워 구두 공격을 합니다. T: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H: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못배운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T: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보십시오. 시어머니를 헐뜯고 욕하거든 일단 부인의 생각을 긍정하고나서 같이 시어머니를 헐뜯고 부인과 합세하여 공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 생각이 맞아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 세고 옛날 것만 주장하고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어요 등과 같이 해 보세요. H: 나도 같이 어머니를 홍보아야 된다고 말씀입니까? (웃으며) T: 어머니가 옆에 없으니 같이 홍보 보아도 괜찮으니 부인보다 한술 더 떠서 같이 합세하여 공격해 보십시오. 그러나 한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본래대로 돌아 간다든지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표를 내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내내 그렇게 간섭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인이 믿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자는 부인 S의 남편 H에 대한 주요 구두공격 무기가 남편이 싫어하는 약점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남편 H가 한걸음 앞서서 부인 S보다 더 공격물을 구두 공격하면 부인

의 주요 구두공격 무기는 효과를 잃게되어 이후에는 효과적인 공격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4회(5. 17. 10시-오후2시) : 부인 S는 옷차림이나 표정에서 많이 밝아졌으며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음. 남편과 상의, 상담 대학에 갈 것이며 특히 이번에 임신되었다고 좋아했음. 내년에 좋아하는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하던 임신도 되어 부인 S는 기쁨과 희망에 넘쳐 있었다.

8차 인터뷰. 15회(남편), 16회(부인) : 인지구조 분석 및 전환(change of cognitive structure), 1차원적 사고→3차원적 사고, 부인의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표출.

15회(5. 30. 오후1시-3시) : T : 부인 S의 증세가 나타난 것을 보면 당신은 주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H : “또 시작이군, 성격이 저러하니 나아질 수가 있겠어? 지켜워!”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위의 H와 같은 사고방식을 1차원적 사고방식 또는 linear thinking(김종만, 1988)이라고 부른다. 사고과정이 고착되어 보는 관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반면에 문제를 한쪽면에서 보기보다 여러 방향에서 보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사고변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쉽게 가져올 수 있다(Hoffman, 1981). 남편 H의 경우 부인 S의 증세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혹시 나의 어떤 잘못이 부인 S의 증세행동을 재발한 것이 아닌가? 또는 부인 S의 증세는 분명히 현재 우리생활에 어떤 불만의 결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생활의 불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행동수정이 쉽게 된다. 이와같은 사고를 3차원적 사고 또는 circular thinking이라고(김종만, 1988) 부른다.

남편 H와 3차원적 사고과정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연습을 가진 후에 집에서 1차원적 사고를 3차원적 사고로 전환연습 결과를 다음 인터뷰때 가져오도록 과제물로 제시했음.

16회(6. 7. 10시30분-오후3시) : 부인 S의 생각중에 자주 머리에 떠오르는 자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찾아보도록 했더니 “남편 H가 저러하니 내가 이 모양이다” “××직장에 계속 남아 있었다라면 지금쯤은…”와 같은 생각들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치료자는 부인 S에게 3차원적 사고를 설명하고 보는 시각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도록 했다. “남편이 저러하니 내가 이 모양이다” → “남편이 그래도 저렇게 착실하고 착하니까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살고 있지 만약 다른 남자 같으면 여태까지 나하고 같이 살고 있었을까?”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쯤은…” → “그때 그만두길 잘했지. 만약에 계속 직장에 나갔었다라면 남편과의 갈등이나 불화 및 정신병원에 다닌다는 나의 약점들이 동료들 사이에 알려졌을 것이다.”

부인 S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꾸는 연습을 같이한 후에 과제물로 제시했음.

9차 인터뷰. 17회(남편), 18회(부인) : 공감 훈련(empathy training).

17회(6. 24. 10시-12시) : 남편 H는 부인 S와 대화가 많아지면서 자주 부인 S와 말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대화에 문제점을 찾아 교정해 주도록 요청해 왔음. T : “보기”를 들어 본다면? H : 남편 : 성당 교우들과 오늘 오후7시에 만나서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부인 : 언젠는 성당일에 미운적이더니 오늘은 어떤일로 당신이 그렇게 열성을 보이지요. T : 또 다른 예(example)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H : 남편 : 우리 딸 Y가 머리가 좋고 참 착하다. 부인 : 부녀간에 들어서 그렇게 좋아해 보아요. 나만 외톨이로

만들어 놓고… H : 위와 같은 대답을 들으면 이야기를 계속할 기분도 안나고 불쾌하여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부인 S의 대답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부인 S와 인터뷰때 대화훈련을 가지기로 했음.

18회(7. 3. 10시20분-오후3시) : 부인 S는 자신의 대화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며 교정을 자청해 왔음.

부인 S에게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일단 긍정하여 받아 들인후에 상대방의 대화 의도(goal)를 잘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Egan, 1982) 설명을 하고 예문을 만들어 부인 S와 같이 대화훈련을 가졌다.

예 1. 남편 : 성당 교우들과 오늘 오후7시에 만나서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남편은 부인에게 “이제는 나도 성당일에 미온적이 아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부인 A : 언젠가는 성당일에 미온적이더니 오늘은 어떤 일로 당신이 그렇게 열성을 보이시요라고 대답하면 남편의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시되어지고 남편의 행동은 비난을 받게 됨으로 남편을 불쾌하게 만든다. 대신에 부인 B : 당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 기쁩니다.

예 2. 남편 : 우리 딸 Y가 머리가 좋고 참 착하다. 부인 A : 부녀간에 들어서 그렇게 좋아해 보아요. 나만 외톨이로 만들어 놓고… 남편이 딸 Y가 예뻐 보이고 자랑하고 싶다는 의도로 말하고 있음으로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부인 B : 요즘 Y가 많이 명랑해지고 밝아졌군요. 당신을 닮은 덕분인가 봅니다.

위의 보기에서 부인B는 남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이것을 인정해 주고 남편의 생각, 행동을 칭찬해 주고 있음을 부인 S에게 인지시키고 많은 예를 들어서 부인 S와 같이 훈련하고 과제로 제출함.

10차 인터뷰. 19회(부인), 20회(남편) : Sex 문제

19회(7. 18. 10시20분-오후3시) :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남편 H와 부인 S는 이제 평안을 되찾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부생활의 성문제(sex)가 제기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치료자가 판단하여 부인부터 먼저 인터뷰를 받게 하였다. 부인 S와의 인터뷰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부부관계가 월 1회 정도이고 특히 남편 H가 소극적, 성 테크닉의 부족, 관심부족 등으로 부인 S의 불만이 많았다. T : 아파트생활 하신다니 방이 몇 개, 누가 어느방에 자는지요? S : 방이 2개이고 거실이 1개인데 가족이 안방을, 나머지 방 1개는 하숙생이 쓰고 있습니다. T : 어떤 하숙생인지요? S : 고등학교 1학년 남자인데 성당 교우의 조카되는 학생으로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며칠동안 기거하게한 것이 6개월이 넘었습니다. T : 딸 Y양이 몇살인지요? S : 6살입니다. T : 언제부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잠 잘 때의 딸의 위치는? S : 지금까지 쪽 같이 자고 있으며 남편과 자신과의 사이에 딸 Y가 자는 경우가 많으며 남편이 딸 Y를 팔에 안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 한번 건너방에 자게 하였으나 딸이 혼자서 겁이 난다며 싫어해서 같이 잡니다. 딸 Y가 부부사이에 자고, 잠 잘 때도 부부가 정장의 잠옷차림으로 잠자리에 든다는 것, 신혼때부터 친정 식구들이 늘 아파트에 기거한 점등으로 인하여 부부의 성관계가 항상 불안, 불만족 했음을 시인하였고 남편의 요구를 부인 S가 자주 거절하였음이 드러났다. T : 옆방의 고등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요? S : 불편해서 당장 내보내고 싶은데 여름방학때까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침실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숙생을 내보내고 딸은 부부가 함께 데리고 자기에는 너무 성숙했으므로 따로 건너

방을 쓰도록 하고 부부가 안방을 사용하되 반드시 안방 문을 잠그도록 하였다.

20회(7. 21. 10시-오후1시) : 부부간의 성문제 점들을 남편 H가 솔직히 시인하였고 하숙생은 며칠후에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딸 Y를 건너방에 혼자 재우기로 부부가 합의했다고 전해왔음. 남편 H는 성(sex)에 대한 테크닉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했음.

11차 인터뷰. 21회(부인), 22회(남편) : 출산기대 불안 감소, 부인과 딸 관계 밀착.

21회(8. 3. 10시20분-1시) : 부인 S는 첫딸의 출산후에 증세악화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하는 기대불안으로 불안해 하였다.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가 다시 생길지 불안해 하고 있으며 또 시골에 계신 분이라 도시생활에 익숙지 못한 점등을 고려 걱정하고 있었다. 남편 H와 의논하여 부인 S가 자신의 산후 간병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기용하되 필요에 따라서 가족 갈등이 적은 파출부를 시간제로 쓴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치료자가 가지고 있던 출산 및 육아 양육에 관한 소책자를 건네 주었다.

22회(8. 14. 10시-12시) : T : 부인에게서 남편과 딸 Y가 너무 가깝고 자신은 고립되어 있다고 여러번 불평하시던데요? H : 어릴때 딸 Y의 양육에 무관심했고 또 딸이 어머니의 병적인 모습을 닮을까 걱정도 되고... T : 딸 Y가 어머니를 병적(abnormal)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를 동일시(identification)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으니 부인 S와 딸 Y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남편 H에게 딸은 일정한 성장단계를 지나면 어머니를 닮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일시(identification)의 설명과 함께 딸 Y를 의

식적으로 부인 S와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가족들이 이제 부인 S를 회복된 정상인으로 대하도록 하였다.

부인 S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환경을 바꾸어 보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 H는 몇달전에 아파트 분양신청서를 냈다면서 당첨되면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이라고 가족들이 희망에 차 있다고 했음.

부인 S는 6차 인터뷰 이후부터 옷차림및 화장이 눈에 띄게 달라졌기 시작하였으며 14회 이후에는 기대감과 확신에 찬 모습이 확인하였다. 19회 때는 부인 S가 “집에서 남편이 나보고 너무 많이 변했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자신도 변했으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나만 변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가 많이 변했음을 남편 H와 부인 S가 느끼고 있었다.

21회를 마지막으로 부인 S는 이제 스스로 충분히 혼자서 문제 해결을 할 자신을 가졌다고 확신하여 정기적인 방문을 중지하고 대신에 만약 특별한 일이 생기면 방문할 것을 약속으로 치료를 종결기로 하고 치료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인 S의 문제행동의 진행사항을 일년동안 관심있게 지켜 보기로(follow-up)했다.

## 논 의

초기 인터뷰에서 밝혀진대로 부인 S의 증세를 남편 H의 늦은 귀가에 따른 부인의 감정이 누적되어 부부간의 감정대립으로 확대된 부부간의 불화로 보았다. 남편의 늦은 귀가 → 부인의 불쾌, 불안 → 남편의 불친절 → 부인의 불친절, 구두공격 → 이에 대응한 남편의 늦은 귀가 → 부인의 화, 분노반응 → 남편의 늦은 귀가, 무관심 반응 → ... 연속된 악순환 과정

으로 볼 수 있었다(Haley, 1985 ; Hoffman, 198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인의 문제는 남편 H와 부인 S의 상호관계의 개선에서 찾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된다고 보았으며 문제를 전부 부인에게 떠맡겨 부인만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Whitaker, 1982). 따라서 위의 연속적 악순환 과정을 깨기 위해서는 행동변화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남편의 귀가시간 변화는 4회에서 즉각 부인 S의 대응변화를 가져와 남편 H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구두 공격을 피하고 친절 반응으로 이어졌다.

부인 S는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드나들었던 관계로 정신과의 정신분석적인 치료에 익숙해져 옛날의 자신과 부모관계, 형제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청하여 “집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선생님께 이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녀원에 다니고 있던 어떤 언니가 나에게 ‘너는 수녀가 될 팔자’라고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등과 같은 이야기들이 상담치료과정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나 치료자는 부인 S 자신의 하고싶은 이야기들을 막거나 억제하지 않고 있는대로 모두 받아들여 주었다. 이후에 부인 S 자신의 이야기들이 거의 다 노출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치료자가 의도하는 치료방향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상담치료 시간이 두배나 길어져 부인의 경우 평균 인터뷰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인 S의 마음속에 쌓였던 하고싶은 이야기들이 표출되어져 부인 S가 마음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6회에서 부인 S의 얼굴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인터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 내용으로 보아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인 S는 상담치료과정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어릴 때 마음의 발달 단계에서 고착된 감정의 흐름이나 마음의 상처를 찾는데 주력하는 정신분석적 치료방법

(Skynner, 1976)들이 지금의 자신의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신과의사들을 거부, 불신하였으며 입원도중에 치료의사들의 질문이나 치료에 반발하여 병어리 행세를 한 적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러한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본 치료자의 문제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인 S의 생각과 일치하여 서로 믿고 신뢰하게 된 것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었다.

9회에서 남편 H로부터 친정 막내동생의 방문을 받고 상당한 회복세에 들어섰던 부인의 증세의 재발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자는 그전에 부인 S와의 인터뷰에서 친정식구들에 대한 비난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부인 S의 증세에 자극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친정 식구들중 특히 작은오빠와 막내동생은 옛날 부인 S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쳤고 막내동생은 결혼후에도 이웃에 살면서 어려울 때는 부인 S를 찾아와 상의를 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부인 S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좋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가져오기 보다는 언제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사직원제출”, “서울로 이사” 등과 같은 비중이 큰 이야기들을 항상 가져와서 부인 S에게 걱정을 전가시켜서 결국 부인 S 자신의 가정갈등문제와 동생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이중으로 가중되어 더욱 불쾌, 불안 및 우울해졌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부정적 자극으로 증세행동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강화를 없애기 위해서 친정 식구들의 직접적 접촉을 피하도록 하였는데 다행히 동생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되어 부인 S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어졌다.

남편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100가지 적어오기, 부인 S에게 어떻게 해 주면 빨리 회복될 것인지 100가지 적어오기 등과 같은 과제물들은 20여가지는(Stuart, 1980) 당장에 적을 수 있겠지만 상당한 분량은 오랫동안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적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였으며 이러한 문제로 오랫동안 머리속에 이러한 생각으로 꼭 차 있으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Jacobson, 1982). 이러한 영향력으로 10회 이후부터 부인 S의 이야기중에서 남편에 대한 칭찬, “그래도 남편은 착실합니다” “절약형”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외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 나타났으며 남편 H가 저녁식사후에 “식기를 씻어준다” “방청소를 해준다” 등 부인 S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었다.

10차 인터뷰 때 부부간의 Sex문제를 부각시켜 남편 H와 부인 S 사이의 Sex문제를 아주 깊이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부인 S의 인터뷰중에 종종 남편 H에 대한 성적(Sex) 불만이 노출되었고 또 문제해결이 원만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부부생활의 근본 문제인 Sex문제(Haley, 1985)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였다. 남편 H와 부인 S가 갈등과 불화속에 있었던 기간에는 거의 부부간의 성(Sex)관계가 없었으며, 남편 H의 요구에 부인 S가 스스로 거부했었고, 딸 Y가 부부와 같이 자고있는 점, 친정식구들의 기저로 가족들의 생활이 안방으로 제한, Y의 출생이후 7년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이 부부간의 계획적인 산아제한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Sex관계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치료가 진행되어가면서 부인 S의 표정과 행동에서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져 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19회에서 부인 S는 “이제 모든 사생활을 정상으로 되돌려 찾고 싶다” “지금부터 신혼처럼 살려고 한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치료방법은 부부간의 문제해결에 효과적임을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보고된바 있었고(Kniskern & Gurman, 1979 etc.) 이번에도 그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직접적인 부부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갈등 문제, 자녀들 문제, 행동문제 등에도 적용되어졌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종만(1988). 심리치료 및 상담에 System이론의 접근 : 가정역학분석. 부산교대 학생생활연구 제9집. 39-58.
- Egan, G. (1982). *The skilled helper*. Monterey Ca : Brooks & Cole Publishers.
- Haley, J. (1985). *Problem-Solving Therapy: New Strategies for Effective Family Therapy*. San Francisco : Jasey Brass Pub.
- Hoffman, L. (1981). *Foundation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asic Books.
- Jacobson, N. (1982). *Merital therapy*. New York : Brunner / Mazel.
- Kniskern, D. P. & Gurman, A. S. (1979). Research on Training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 Status, issues, and dire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5. 85-94.
- Minuchin, S. (1985). *Family and Family Therapy technique*, New York : Harvard Press.
- Pendagast, E. G. & Sherman, C. O. (1978). A guide to the Genogram. *In The Best of The Family*, New York : The center for family living.
- Pinsof, W. (1981). Family Therapy Process Research. In A Gurman. As & Kniskern. P.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 / Mazel.
- Satir, V. M. (1967).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
- Stuart, R. (1980). *Helping couples changes*. New York : Guifford Press.
- Skynner, A. C. R. (1976). *Family therapy: The treatment of natural system*. London : Routledge Kegan Poul.

Wells, R. A., Dilkes, J. & Trivelli, al. (1972). *The Results of Family Therap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Family Process, 7, 189–

207.

Whitaker, C. (1982). *From Psyche to System*. New York : Guifford Press.

A Case Study of Treatment of a Post–partum Psychotic  
Patient through Family Therapy

Kim, Jong – man

*Pusan Teacher's College*

*Student Guidance Research Center*

**Abstract**

A 37–year–old post–partum psychotic woman patient was treated with family therapy. The subject was three times hospitalized and was asked to divorce by her husband. Couple interactional relationship was analyzed and it focus on couple problems. The husband or the wife was treated for average 3 hours per week. After 6 months treatment the woman recovered and one year follow–up was taken.